
2011년 방송통신 핵심과제

2010. 12. 17.

차 례

I. 방송통신 현주소	1
II. 스마트시대의 도래	4
III. 3대 핵심 과제	5
1.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	6
2. 시장 선진화	17
3.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	24
IV. 핵심법안 추진현황	30
V. 2010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평가	31

I. 방송통신 현주소

□ 2010년 주요성과

- (스마트폰 보급 활성화) 인터넷, banking, 쇼핑 등을 손안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('09년 대비 8.7배) 되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촉발

< 국내외 스마트폰 보급 및 성장률 비교 >

세계시장			국내시장		
'09	'10(예상)	성장률	'09	'10(예상)	성장률
1억7천만대	2억7천만대	1.6배	80만대	700만대	8.7배

- (IPTV 시장 안착) '08년말 서비스를 개시한 IPTV 서비스는 '10년말 300만 가입자를 확보하여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5%를 차지할 전망
 - (종편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) 역량 있는 종편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,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·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 - 종편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('10.9월), 세부심사 기준('10.11월) 및 승인 심사계획('10.12월) 마련
- ※ 연말까지 종편·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
- (브로드밴드 리더십 강화) 광대역통합망(BcN)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1,337만 가구에 5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, 2,995만명에게 1~2Mbps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

※ 2010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브로드밴드 리더십 평가 결과 한국이 1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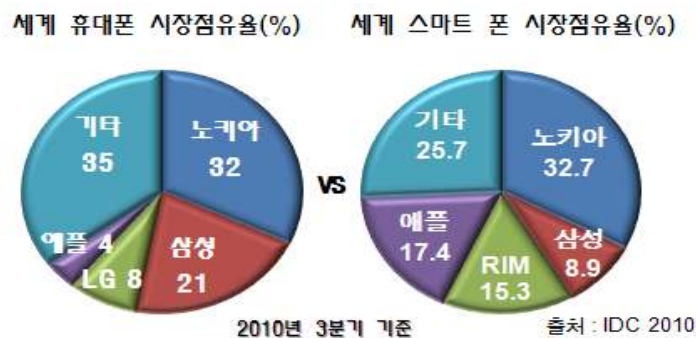
□ 미흡한 점

- (방송콘텐츠 시장 영세)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45억불로 미국, 일본, 영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

※ 2010년 주요 국가 방송콘텐츠 시장 규모(출처 : PricewaterhouseCoopers 2010)

- 미국(1,595억불), 일본(298억불), 영국(188억불), 중국(171억불), 프랑스(156억불)

- (시장변화 대응 미흡) '10년 3/4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29%인 반면 애플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시대에 대한 대응 지연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9%에 불과



- (글로벌 미디어그룹 부재) 세계적 미디어 그룹 중의 하나인 타임 워너의 매출액은 258억불('09년)이나, 우리나라 전체 방송시장은 80억불 규모로 타임워너의 31% 수준

〈 타임워너 및 국내 방송시장 매출액 비교(억불) 〉

구 분	수신료	광고료	콘텐츠판매	기타	계
타임워너	89	52	110	7	258
한국 방송시장	22	25	3	30*	80

※ 협찬수익(3.5억불), 홈쇼핑송출수수료(3.7억불), 홈쇼핑매출액(17.3억불) 등으로 구성
(출처 : '0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)

- (이용자문화 미성숙) 연평도 포격 사태 시 허위문자 유포, 타블로 사태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 책임 있는 이용자 문화 미정착

〈 국민이 바라보는 방송통신 - 설문조사 〉

□ 조사개요

- 방통위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방송통신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전국 만 20~50세 이상 국민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총 1,000명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
- 조사기간 : 2010.12.3~2010.12.9

□ 조사결과

- 방송통신위원회 이미지 평가
 - ‘국민을 배려한다’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이미지(2.88점)가 형성되어 있으나, ‘미래비전 제시’(2.60점) 측면에서는 미흡
- 주요 정책성과 평가
 - 방통위 설치 이후 성과가 높았던 정책을 2개 선택해달라는 항목에 ‘방송디지털전환 촉진’(27.0%)과 ‘방송통신융합 촉진’(13.7%), ‘방송 품질 향상 및 시청권 보장’(13.1%) 등의 순으로 응답함
 -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책을 2개 선택하라는 설문에서는 ‘저질·막말방송 예방’(22.2%), ‘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’(18.3%), ‘사이버 병폐해소’(15.7%) 순으로 응답

Ⅱ. 스마트시대의 도래 (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)

□ 미디어융합 및 빅뱅

- 다매체 · 다채널 경쟁과 방송의 디지털전환, 방송광고시장의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
-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단일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방송 · 통신 · 인터넷 등 인접 산업간 장벽이 소멸

□ 글로벌 IT기업 주도의 생태계 경쟁

- '08년 애플의 앱 스토어,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로 촉발된 플랫폼 주도권 경쟁이 PC, 스마트폰, 인터넷 등 전 분야로 확산
- 글로벌 IT 기업은 콘텐츠, OS, Application, 기기를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주도

□ 콘텐츠가 기업의 경쟁력 좌우

- 과거 PC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이용기기가 PC, TV,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되고,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

□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

- 스마트 시대에 이용자는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 창출 · 분배 · 소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
- 블로그, 소셜 네트워크 등 개인화 · 소집단화 된 미디어가 사회의 새로운 소통문화 및 가치를 창출하는 채널로 기능

Ⅲ. 핵심 과제

①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

-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기기-콘텐츠-서비스를 포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방송통신콘텐츠, 광고 등 관련 산업 활성화
- ⇒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,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, 클라우드, 사물지능통신 등 전략서비스 육성,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시대 선점

② 시장 선진화

-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
- ⇒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, 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,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혁신, 방송의 디지털 전환,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을 선진화

③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

- 이용자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,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- ⇒ 스마트워크 확산,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, 사이버 시큐리티 기반 조성, 통신요금 부담 완화,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조성

1.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

1-1.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

◆ [11년 계획] 방송통신 콘텐츠시장 활력 제고, 제작 인프라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□ 시장 활력 제고

- (제작역량 강화) 외주제작비율을 드라마, 非드라마 등 장르별로 조정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
 - 기존 다큐 등 非드라마 분야에서 미사용된 촬영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非드라마 제작사의 자립기반 확충
- (방송시장 규제 개선) 방송프로그램 제작·유통 역량 확대 및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범위 제한완화
- (방송통신콘텐츠 투자) 모바일·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펀드 운영
 - KIF펀드(Korea IT Fund 3,700억원)를 활용하여 모바일 콘텐츠, 모바일 광고 등과 관련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
 - 정부·민간 공동 2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투자펀드를 조성, 수출형 대형 다큐멘터리, 3D방송 콘텐츠, 융합형 콘텐츠 등에 투자
- (통합 앱스토어 구축) 이통사, 운영체제(OS)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'통합 앱스토어' 서비스 개시('11.6월)
 - WAC(Wholesale App Community)와의 연동으로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

□ 제작 인프라 강화

- (제작 지원) 명품 다큐 등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(180억)
 -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콘텐츠, 공공·공익적 콘텐츠 및 창의·실용적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
 - 기존 방송사업자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1인 창작집단(독립PD, 방송작가) 및 방송사업자 간 컨소시엄이 기획한 프로그램도 제작 지원
- (제작인력 육성) 신인 연기자·PD·방송작가 육성 및 등용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단막극 제작 활성화 지원
 - PD·방송작가·방송기술인·기자·성우·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인력 전문 맞춤교육 실시(33억원)
- (지원센터 건립) 방송콘텐츠 기획·제작·송출·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 구축('12년 완공, 방통위·문화부 공동사업, '11년 방통위 예산 346억)

〈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개요 〉

- ◇ 조성규모 : 부지 10,702㎡, 연면적 55,952㎡, 지상 18층 지하 4층
- ◇ 주요시설 : 스튜디오(대형1, 중형1, 소형4), 중계차(1), 편집실(16)
- ◇ 이용대상 :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, 독립제작사, 1인 창작집단 등

□ 해외시장 진출 지원

- (신규시장 개척) 중남미·동유럽 등 방송콘텐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쇼케이스 개최, 정부간 협력 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
 - ※ '11년 중남미 5개국 및 이슬람 또는 구 소련권역 4개국 쇼케이스 추진
- (방송채널 진출 확대) 한류 확산을 위해 보도·교양·오락·음악채널 등 주요 방송채널의 해외진출 국가 확대 지원
 - ※ 프로그램 공동제작, 제작인력 초청연수 등 추진

< 방송 채널 해외 진출 현황 >

구분	아리랑 TV('10.10)	KBS WORLD('10.11)	CJ 미디어('10.11)
아시아	23개국	15개국	8개국*
북미	1개국	3개국	
중남미	18개국	15개국	
유럽·CIS	14개국	12개국	
중동·아프리카	2개국	24개국	
오세아니아	5개국	6개국	
계	63개국	75개국	8개국

* 일본, 대만, 홍콩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캄보디아, 미얀마

- (한국어방송사 지원) 해외의 한국어방송사에게 국내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지원, 방송제작 인력 연수·교육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우리문화 접근성 제고(18억원)

※ 해외 한국어방송사 현황 : 17개국 96개 방송사('10.9월 기준)

1-2.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

- ◆ 규제개선 및 경쟁촉진으로 기존 광고시장의 경직성과 정체를 타개하고 스마트 광고기반 조성으로 신규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 대응
 -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'11년 GDP 0.74%, '15년 GDP 1% 수준으로 확대

□ 추진 배경

- 광고집행이 매스 노출형 광고에서 효과성 위주로 변화되어 전통적 광고는 정체인 반면 글로벌 기업중심의 뉴미디어 광고 지속 성장
 - 기존 매체는 성장이 정체되고 뉴미디어는 대폭적인 성장 추세

< GDP 및 매체별 연평균 성장률 >

구분	GDP	지상파	유료	신문	인터넷
연평균 성장률	6.3%	-0.3%	19.9%	-1%	31.5%

※ 연평균 성장률 (2001년~2010년, 10년간)

- 구글,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인터넷에서 모바일, 스마트TV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광고시장 진출 본격화

□ 방송광고 규제완화

- (간접광고, 협찬고지 개선)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사-외주사간 상생을 위해 제작협찬, 간접광고 등 상호 허용
- (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) 먹는 샘물,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
- (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) 광고시장 경쟁상황,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광고 총량제, 중간광고 제도개선 추진

□ 방송광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중소방송 지원

- (판매시장 경쟁도입) 정부출자 공사 설립 및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를 통해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
- (대행시장 효율성 제고) 광고요금, 판매방식, 수수료 보상체계 등 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기능 제고(장기물 확대, 대량구매 혜택 등)
- (중소방송지원) KOBACO체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 지원을 광고매출배분, 판매지원, 기금지원 등으로 제도화 추진

□ 스마트광고로 신규시장 창출

- (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)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, 통신, 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광고생태계 조성
 - 제작시설,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육성
- (광고시스템 개발·표준화) 기업-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TV 광고시스템 기술개발 및 광고제작 규격·형식 표준화 추진
- (디지털기반 광고효과측정) 리턴패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유형별 특성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체계 구축

- **(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)** 이용자의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마련
 - 현행 법률에 따른 이용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, 세부 활용 방식 ·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 제시
- ※ 맞춤형 광고 : 이용자의 이용행태(OBA :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), 위치정보 (LBS : Location-Based Service)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· 모바일 광고

1-3. 전략서비스 육성

◆ **[11년 계획] 3DTV, 클라우드, 사물지능통신, N-스크린 서비스 등 전략적 서비스를 육성하고, 미래 유망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방송 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**

□ 고화질 3DTV 상용기반 확보

- **(실험방송 확대)** 고화질 3DTV 기술검증을 위한 실험방송을 연중 실시하고, 대구세계육상선수권(8.27~9.4) 주요 경기를 실험 생중계
 - 실험방송용 고화질 3D 표준 콘텐츠를 제작 · 방송(8편)
 - 3D 시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
- **(무안경 3DTV 기술개발)** 안경 없이 여러 위치(시점)에서 3D 시청이 가능하도록 무안경 3D 영상 전송·재현, TV 구현기술 개발

※ 연구개발 세부계획

구분	일반화질 무안경 3DTV	고화질 무안경 3DTV
기간	'11~'12년(100억원)	'13~'14년(100억원)
해상도	640X480	1920X1080
다시점 특성*	최대 9개의 위치에서 무안경 3D 구현	최대 16개의 위치에서 무안경 3D 구현

* 무안경 3DTV는 일반 TV와 달리 특정 위치에서만 3D화면이 구현됨

- (국제표준화 주도) 국산 3D 장비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
- MPEG(세계동영상표준단체), ATSC(북미DTV표준단체) 등이 우리나라의 HD급 3D 방송기술에 주목

※ TTA-ATSC간 표준협력 MoU 체결('10.4월), ATSC의장단방문('10.11월)

* MPEG(Moving Picture Experts Group), ATSC(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)

< 3DTV 시장 전망 >

- [세계] '10년에는 약 400만대 판매가 추정되며, '11년에는 약 1,300만대(보수적) ~1,800만대(낙관적) 전망

※ '10.2월부터 11월까지 국내(삼성, LG) 가전사는 약 165만대 판매(세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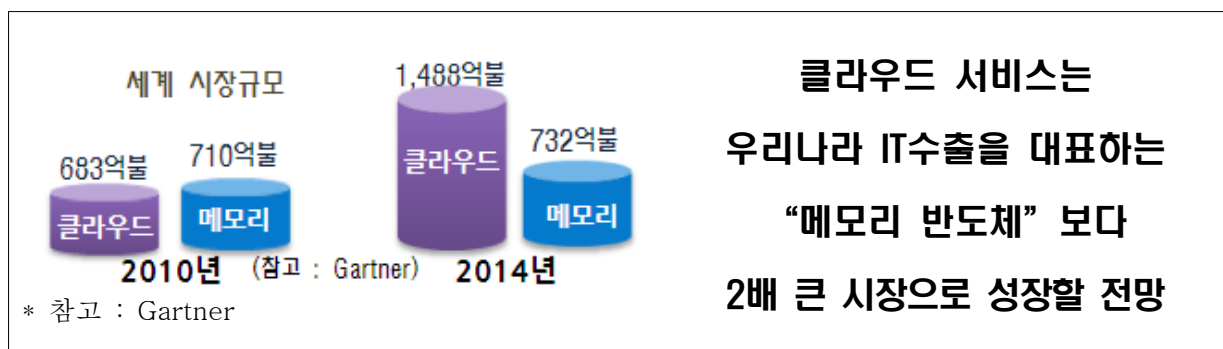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3D TV(백만대)	4.2	12.9	27.4	43.5	60.5

(출처: iSuppli, 2010.5월)

- [국내] '10년 약 15만대 판매 추정되며, '11년 약 40~50만대 전망

□ 클라우드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

- (글로벌화) 세계최고 ICT인프라, 세계 최저수준의 전기요금 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글로벌 ICT 브랜드로 육성
- 통신업체 “IDC의 Cloud Data Center로의 전환” 확산, 해외기업 유치활동 적극 지원 등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기지화 추진
- 모바일 클라우드 시범사업 지원, 클라우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모델 발굴



- (우수서비스 인증제) 서비스·사업자의 품질, 안정성, 보안성 등을 인증하여 이용자의 Cloud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수요 확산 촉진
- (법제도 정비) 계약상 분쟁 가능성,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, SLA 보급 및 관련 법령정비
- (테스트베드)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, 솔루션 등을 개발, 시험·검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확대·구축

□ 사물지능통신 확산

- (수요 확산) 사물지능통신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상의 서비스 모델 보급·확산 설명회 개최 및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
 - ※ 서비스 모델 例 : 공공시설물 관리, 기상 모니터링 등
- (테스트베드 구축) 사물지능통신 단말, 서비스 기술을 시험·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 무료 제공(19억원)
 - 시험환경 제공과 기술 및 문제점 개선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

□ N-스크린 서비스 활성화

- (생활밀착형 서비스 발굴) 교통·관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N-스크린 기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·제공
 - 수요조사를 통해 방송·통신사업자, 솔루션업체, 서비스 수요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서비스 모델 개발
 - ※ N-스크린 서비스 : TV·PC·모바일 기기 등 여러 매체에서 콘텐츠를 끊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
- (상호호환 기술개발) 다양한 기기의 화면(스크린) 및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N-스크린 서비스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
 - ※ 각종 스마트 기기의 스크린 간 협업서비스 기술개발 추진('11~'13년, 45억원)

- **(콘텐츠 연계·표준화)** 방송·통신사업자, 제조업체 등이 콘텐츠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
-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술 검증 및 서비스 표준 규격 마련

□ 미래 유망기술 개발

- **(기술개발 투자)**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향후 2년간 약 3천억원을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

〈 2011년 방송통신 분야별 기술개발 예산(억원) 〉

방송	이동통신	BcN	정보보호	전파위성	ETRI지원	합계
183	210	210	124	238	495	1,460

- **(초고화질 TV)** 현재의 고화질 TV 보다 4배 선명한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('11~'12년 100억원)
- **(스마트TV)** 음성·동작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TV 핵심기술 개발('11~'12년 200억원)
- **(미래인터넷)** 품질(QoS)·이동성이 보장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, 실시간 트래픽 제어기술 등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('11~'12년 420억원)

□ 국제표준화 선도

- **(4G 국제표준 선도)** 4G 이동통신의 국제표준화가 '12.1월 최종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개발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등 표준화 활동 추진
- ITU 4G 표준회의('11. 3월·6월·10월) 참가 및 IEEE, 3GPP 등 국제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와의 협력 강화

※ 3GPP :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(LTE 표준화 협의체)

※ IEEE :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(WiBro 표준화 협의체)

- **(한글자판 표준화)** 상용화 된 기존방식 중에서 표준안을 선정하여 국가표준 제정('11.상반기) 및 이후 국제표준화 추진('11.하반기)

※ 한글자판 현황 : 천지인(시장점유율 54%), 나랏글(22%), SKY(16%), 기타(8%)

- **(ITU 전권회의 준비)** '14년 ITU 전권회의 한국 개최를 위해 '11년 중 준비조직 구성 및 개최도시 선정

- ITU 전권회의 유치로 계기로 한국의 앞선 기술역량 홍보,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확대 등 전 세계 ICT 표준제정 영향력 강화

※ ITU(국제전기통신연합)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ICT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, 192개 회원국의 장·차관을 포함한 2,5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

1-4.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

◆ **[11년 계획] 차세대 무선망 구축 및 TV 유휴대역(White Space) 적극 활용, 초광대역융합망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TV 등 신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**

□ 전국 WiBro망 구축

-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WiBro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('11년 상반기 최종 이행점검 실시)

〈 국내 WiBro 투자 계획 〉

구 분	'06~'10	'11	누계
K T	8,944억원	1,487억원	10,431억원
SKT	7,950억원	300억원	8,250억원

- 국내 Wibro 기술·장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

※ 삼성전자, 4G(WiBro/LTE) 통합장비 미국 스프린트사에 수출('10.12월)

□ 차세대 무선망(LTE) 구축

- 무선트래픽 폭증에 대한 대응, 미래시장 선점 등을 위해 '11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LTE를 도입, '13~'14년 단계적으로 망 구축 확대

□ Wi-Fi 확충

- 급증하는 데이터 분산 및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 제공을 위해 통신사의 무선인터넷 Wi-Fi망 구축 유도

※ '10년 66천개소 ⇒ '11년 165천개소로 Wi-Fi Zone 2.5배 확대 전망(통신사 계획)

□ 초광대역융합망(uBcN)의 지속적 구축

- (기가인터넷 도입 추진) 2012년 BcN망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도입을 위한 시범서비스 및 상용화 기반 조성(30억원)
 - '11년 시범서비스 규모 : 6개 도시 1,500 가구
 - WiFi · 펌토셀 무선기술을 접목한 유무선 융합서비스 시범 도입, 3D멀티앵글 영상, 고화질 HD영상통신 킬러콘텐츠 발굴 등
- (전국 광대역망 구축) 50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에 100M급 광대역망 구축 지원,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
 - '11년 지원규모 : 800개 행정리 약 3만 가구
 - 농작물 원격 모니터링, 농업기술/의료/교육 영상컨설팅 등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발굴 · 지원
- (미래네트워크 선도 기반강화) KOREN연구개발망, 국제연구망을 고도화하여 미래네트워크 기술 · 서비스 실증테스트 환경 구축
 - 미래인터넷, 방통융합, 스마트서비스 등 차세대 ICT 기술개발 및 응용서비스 상용화 지원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(50억원)

- ASEM 산하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로 신설하는 **TEIN협력센터**를 국내에 설립하여 미래네트워크의 글로벌 협력 주도권 확보

* TEIN 협력센터 : 아시아 19개 국가와 유럽이 연결된 국제 연구개발망(TEIN : 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) 운영관리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ASEM 산하 전담기구

□ TV 유휴대역(White Space) 적극 활용

- (기본계획 수립) TV 대역(54~698MHz) 중 지역별로 비어있는 TV White Space를 WiFi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

※ TV 유휴대역은 DTV 전환이 완료되는 '13년부터 활용 가능

- (실험서비스 실시) 수요 조사를 통해 WiFi용, 지역정보제공용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,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실험서비스 실시

- TV White Space는 기존 WiFi보다 도달범위가 넓어 농어촌 등 넓은 면적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인프라 구축에 유리

- (TV White Space 활용계획) DTV 전환일정 및 TV 유휴대역 활용 기술 상용화시기를 감안하여

- 기본계획 수립 및 실험서비스 실시('11년), 기술검증 및 제도 마련('12년), 시범 및 상용 서비스 실시('13년)

※ '11년말 국제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이며, 관련 장비는 '13년경 상용화 예상

< 해외 동향 >

- (미국) 무선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여 TV유휴대역을 무선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'슈퍼 와이파이' 계획 발표 ('10.9월)

※ TV White Space 대역은 기존 WiFi(2.4GHz 등)에 비해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전파의 전달 특성이 좋고 도달범위가 넓어 '**Super-WiFi**' 라는 단어를 붙임

- (일본)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·검증 추진 중

- (유럽) 영국은 DTV전환 후 TV 유휴대역의 활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검토 중이며, 기타 국가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 중

2. 시장 선진화

2-1. 디지털전환 본격 추진

◆ [11년 계획] 울진, 강진, 단양 3개지역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주 시범사업(6.29.)과 전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

* 인지율/보급률 : ['10실적] 70.8%/ 64.7% → ['11년 목표] 90%/ 80%

□ 방송시설의 디지털화

- (방송보조국 구축) 기간방송국은 디지털 전환 100% 완료하였으며, 지역중계를 위한 방송보조국을 '12.6월까지 100% 디지털방송 시설로 구축할 계획

※ '10.11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시 방송보조국 구축 의무를 허가조건으로 부과

- (디지털방송 확대) 기존 아날로그방송 제작·송출시설을 디지털화 하고 HD 고화질 방송제작을 확대
 - HD 편성 비율을 '11년에는 70%, '12년에는 75%까지 확대

□ 취약계층 시청권 보호

- (취약계층 지원) 저소득층(29만가구)에게 DTV 구매비용(10만원)을 지원 (또는 DTV 컨버터 지원)하고, 저소득층 가구의 TV 안테나를 개·보수
 - '11년 7만가구에 96.5억원 지원
- (수신실태 조사) 전국민이 지역적, 환경적 여건과 상관없이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국의 400여개 도서지역과 15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('11.6월)
- (난시청 해소) 노후된 공시청 설비 개선,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위성수신기기 보급으로 농어촌, 산간오지의 난시청 해소
 - '11년부터 '12년까지 소출력중계기는 150개, 마을공시청은 358개를 설치하고, 위성수신기는 26.2만 세대에 보급

□ 함께하는 디지털세상 구현

- (지원센터 구축) 방송의 디지털전환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디지털방송전환추진본부와 시도별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를 구축
 - 시도별 지원센터를 '11년에는 9개, '12년에는 25개 구축·운영
- (대국민 홍보) 대중매체, 순회차량 등을 활용하여 전국민에 대한 디지털전환 홍보 강화
 - 노인·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면대면 홍보 실시(35억원)
- (가상종료 실시) 디지털전환 사전 점검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아날로그방송을 전국적으로 일시 종료하는 가상종료(soft-test) 추진
 - ※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약 10분 내외 일시 종료

2-2. 시장경쟁 활성화

◆ [11년 계획] 방송산업 고도화,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, MVNO 서비스 활성화, 망 중립성 정책방안 마련, 소모적 마케팅비의 미래 투자 전환 등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

□ 방송산업 고도화 촉진

- (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) 종편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 지속 평가 및 규제수준 정비
 -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방안
 - ※ 운영주체, 면허방식, 채널구성 등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(필요시)
 - ※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: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방송주파수 대역(6MHz) 내에서 HD 외에 SD, 오디오, 데이터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
 - 현재의 단일 채널(Ch 1)에서 최대 4개(Ch 1-1, Ch 1-2 등) 채널까지 확보 가능

□ 국내 방송장비산업 육성

- (산학연 공동 기술개발) 3DTV, UHDTV, AT-DMB 등 新기술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차세대방송장비시장 선점 추진

※ '10년 605억원, '11년 495억원 지원으로 인코더, 방송서버 등 핵심 송·수신기술 개발

- (국산장비 우선구매 촉진)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대상에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(정보통신기술협회(TTA) 부설) 인증제품 포함을 추진(지경부 협의)하고,

- 방송사의 (재)허가 등 방송사업규제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·평가지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여 부문 포함여부 검토

- (인증센터 확대 운영) 품질과 규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한 방송장비의 신뢰성·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의 검증대상 확대

〈 방송장비 시험인증대상 확대 계획〉



□ 방송의 공적 기능 제고

- (KBS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제고)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대국민 공적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추진

- 신속·정확한 재난방송,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, 고품질 방송 콘텐츠 제작 강화 등을 통해 품격 있는 방송서비스 제공

- (EBS 중심 사교육비 경감) 초·중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대폭 경감 추진

※ 전체 사교육비(21조6천억원)에서 초·중학 부문(16조5천억원)이 76.3% 차지('09년, 통계청)

□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혁신

- (통합방송법 제정 추진)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방송법, IPTV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
 - 기술발달에 따른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관련 법령에 수용 추진
- (사업구역 확대 등)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 확대 및 M&A 활성화 추진
 - 플랫폼사업자 및 채널사업자 결합규제,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총액 규제 등을 개선하고, 협소한 방송사업구역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 확보 추진

□ 신규 통신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

- (MVN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) '10년 도입된 MVNO(재판매)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여 신규서비스 확산과 경쟁활성화 추진
 - MVNO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('11.6월)
 - MVNO의 시장점유율, 경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량구매 할인제도 도입('11.6월)
- (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) 모바일인터넷전화 · 스마트TV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망중립성 정책방안 검토
 - 과다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,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
- (한글 국가도메인 도입) 완전한 한글 인터넷주소(예, 방통위.한국) 사용이 가능한 한글 국가도메인 서비스 개시

※ 현재는 영어(kcc.go.kr) 또는 한글+영어(방통위.kr) 인터넷주소 사용 가능

— < 한글 국가도메인 기대효과 > —

- **(이용자 편의 증진)** 완전한 형태의 한글 도메인 도입으로 한글 이용자의 도메인 사용 편의성 증진 및 인터넷 접근성 강화
- **(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창출)** 완전한 한글로 구성되어 도메인 이름만으로 사업홍보를 할 수 있어 새로운 인터넷마케팅이 용이, 한글전자메일시스템 구축 가능
- **(국가 이미지 제고)**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한글문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글 정보화에 일익을 담당

- **(IPv6전환 본격화)** 현행 인터넷주소(IPv4) 신규 할당 중지 및 차세대 인터넷주소(IPv6)로의 전환 본격화, ISP 등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
- **(모바일 창업지원)** 모바일 앱개발자를 위한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(smac.or.kr) 고도화, 위치기반서비스(LBS) 지원 강화
 - 스마트 모바일 창업자 애로상담, 위치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사업화 지원

□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

- **(마케팅비를 투자로 전환 유도)** 통신사업자의 소모적 마케팅비를 대폭 축소하여 네트워크 고도화, R&D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 유도

<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대비 투자비 >

(단위 : 조원)

구 분	2008	2009	2010(추정)
매 출 액	37.1	36.3	37.3
마케팅비	8.3	8.6	8.2
투 자 비	6.9	6.5	5.9

- **(불공정행위 제재 강화)**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경품 지급행위 등 소모적 마케팅 경쟁 억제
 -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, 시장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, 가입자 모집정지 등 제재 강화

2-3. 공정경쟁 환경 조성

◆ [11년 계획] 대·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,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, 외주제도 개선,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구축

□ 대·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

- (SO-PP간 수익배분 기준 강화)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*과 대상(VOD 포함여부)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제도화 추진

* 현재 수신료 수익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체로 25% 지급

- (공정한 콘텐츠 수익배분) 콘텐츠사업자(CP)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이통사 앱스토어와 CP간 판매수익 배분문제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, 이통사-CP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('11.6월)

□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

- (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재설정)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 재송신 채널범위(현재 KBS1, EBS) 재설정 추진
- (방송사간 분쟁해결 제도화) 재송신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기 위해 중재제도 도입 등 분쟁해결 절차와 방식을 마련

□ 외주제도 개선

- (외주인정기준) 기획·연출 등 제작요소 투입 정도를 반영한 외주 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육성
- (외주참여자 보호) '10.11월 방송3사와 드라마 제작사가 합의한 '지급 보증보험 가입'등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

□ 중소기업 지원 강화

- (중기 전용 홈쇼핑 도입) 중소기업 지원 및 시청자 권익 실현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
- (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) 통신사업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·기술·교육 지원을 강화토록 유도

※ 통신3사 융·투자 규모 : 4,400억원('10년) → 5,100억원('11년, 예상)

3.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

3-1. 안전한 인터넷사회 구현

◆ [11년 계획] 안전한 인터넷사회 구현을 위해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 및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제고

□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

- (민관합동 모의훈련) 사이버 공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SP, 백신업체, 이통사 및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·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(연1회 → 4회)
- (좀비PC 확산 방지) 악성 프로그램 유포, DDoS 공격,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좀비PC 확산 방지
 -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신고·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고, 치료를 유도하는 '감염PC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' 가동(11억원)
 - 국가 사이버 위기시,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동원된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차단 등 좀비PC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
- (유언비어 대응)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, 유언비어 정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 강화
 -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,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 조치
 -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차단 기술개발 등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 대응 강화

□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역량 강화

- (악성코드 점검 확대) 악성코드 일일점검 대상 웹사이트를 현재 100만개 수준에서 국내 전체 웹사이트(180만여개)로 확대
- (사이버 긴급대피소) DDoS 방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'사이버 긴급대피소' 운영(21억원)
 - ※ DDoS 공격 트래픽은 분류·차단하고, 정상적인 트래픽만 전달
- (모바일 보안) 스마트폰, 스마트패드 등 신규 단말기기 보급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보안위협 대응역량 강화
 -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보급, 스마트폰 보안상태 이용자 자가 점검도구 개발·배포, 스마트기기 보안위험성 검증역량 강화 등
- (예산·인력·조직 보강) 정보보호, 프라이버시 보호, 불법유해정보 방지 등 안전한 인터넷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·인력·조직 보강 추진

□ 사이버 안전의식 제고

- (예보·홍보 확대) 국민들에게 친숙한 TV, 인터넷,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보호 예보·홍보 활동 다각화
- (이용자 소양 함양)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,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
 - 인터넷 소양교육 프로그램 확대(20-200-2000 스마트존 프로그램 도입 등), 범국민 아인세(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) 활동 강화
 - 개인정보보호 교육 중·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, 지역사회 밀착형 교육,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 추진

3-2. 따뜻한 이용환경 구축

◆ [11년 계획]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, 방송통신 이용자에 대한 권익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따뜻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

□ 통신요금 부담 완화

- (스마트폰 요금제 개선)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스마트폰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 개선 유도
 - 청소년·노인층 요금제 출시, 무료 통화량 확대 유도 등
- (선불요금제 활성화) 청소년·노인층 등 소량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선불요금제 활성화 계획 마련
 - ※ 선불요금제는 가입비·기본료가 없어 소량이용자에게 유리
- (인터넷전화 이용 촉진)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 요금이 저렴한 유선 인터넷전화 이용을 촉진

□ 이용자 권익증진

- (스마트폰 음성 품질평가)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유도
 - 단말기 간(일반폰↔스마트폰, 스마트폰↔스마트폰 등) 다양한 상황별 음성 통화 품질 측정('11.6월)
 - ※ 다양한 상황 : 단말기 이동 및 정지시, 데이터 사용 및 미사용시 등
 - 측정 자료 등을 기반으로 통화끊김 현상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('11.10월)
- (이용자피해 구제 강화)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('11.9월)

- 금전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
- 위반 사업자가 시정조치 전 이용자에게 배상조치를 한 경우 향후 부과될 과징금에서 기 배상 금액만큼 감경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검토
- **(이용자보호수준 평가)** 방송·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사업자들 간의 자발적인 고객만족 경쟁을 유도('11. 상반기)
- 통신과 유료방송분야로 나누어 주요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
- **(방송 품격제고)**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하여 방송언어 순화 및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강화
- 방송사업자 자율심의를 강화하고, 사후 심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

□ 사회적 약자 보호

- **(방송 동등 접근권 보장)**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- 저소득층 장애인의 80%까지 방송수신기 보급(25억)
- 자막·수화·화면해설 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사를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, 지상파 4사의 자막방송 편성률 96% 이상 달성(33억)

<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실적 및 목표('06~'11년) >

구 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
장애인방송 지원 방송사업자수	9개사	22개사	28개사	37개사	41개사	50개사 이상

- **(스마트기기 교육)** 다문화가정·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 제고
-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스마트기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스마트 기기 활용교육 실시(연 90회)

3-3. 소통사회 기반 조성

◆ [11년 계획] 스마트워크 확산,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전략을 수립·추진하고 일하는 방식, 通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선진 이용자 문화 조성

□ 스마트워크 확산

- (시범사업) 중소기업 등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형 모델개발 및 이용확대 추진
 -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
 - 스마트TV, Giga인터넷 기반 홈 오피스 서비스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
- (모범사례 확산) CEO 등 수요자 맞춤형교육, 도입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, 모범사례 홍보·전파
- (미래형 선도모델·기술개발) 초고현장감의 미래선도형 스마트워크 모델(Smart-Pot)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(30억원)
- (가이드라인) 도입 준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유형별 준비사항, 조직·업무절차 등 스마트워크 도입·운영 종합안내서 보급(1월)
 - 스마트워크 도입 관련 정보유출, 보안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·보급

<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>

구 분	주요 내용
관리적 보안	스마트워크 서비스 이용 시 정보의 취급 및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
기술적 보안	스마트워크 단말기, 네트워크 인프라,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
이용자 보안	스마트워크 이용자 보안교육, 정보자산 취급 및 관리 등

□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촉진

- (추진배경) 소셜플랫폼기반 서비스(SNS, 소셜커머스, 소셜게임 등)의 사회·경제적 영향력 증대

※ 소셜플랫폼이 기업의 콘텐츠·미디어 유통 및 광고의 기본 구조화 되고, 기업 및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

<SNS 체류시간이 포털 추월>



(출처 : nielsenwire, 2010)

- (활용전략 수립) 새로운 소통(Social Browser, Social KMS 등) 및 비즈니스 (소셜커머스, 소셜게임) 인프라로서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전략 수립

※ '09년 영국은 '디지털 참여국(Direct of Digital Engagement)'이 신설되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등을 추진

- (핵심기술 연구) 이용자 맞춤형 실시간 검색기술, 정보의 신뢰성을 분석하는 기술 등 차세대 소셜플랫폼 구현 기술 연구

- 소셜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,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

※ 소셜 브라우저, 소셜검색, 소셜TV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의 핵심기술 확보 필요

- (성숙한 이용문화 조성) 소셜플랫폼 활용 교육 및 부정확한 정보 확산방지를 위한 자정체계 연구 등 성숙한 이용문화 조성

-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활성화 간 조화로운 개인정보보호 규제 적용방안 마련,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규범 준수 유도

IV. 핵심법안 추진현황

□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(방송광고판매회사 도입 관련)

- (주요내용)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
- (추진경과) '09.12월, 국회 문방위 상정, 현재 법안심사 소위 계류 중
- (쟁점사항) 방송광고판매제도와 관련 경쟁구도(민영 사업자 수),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영업 방식 등이 주요 쟁점
 - 방송광고시장 혼란 가중 및 43개 중소방송 경영난 등 우려
- (향후대책) 입법지연 시 중소방송 지원대책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되, 당·정 협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 추진

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전부개정 법률안

- (주요내용)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및 이용활성화,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,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,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안
- (추진경과) '09.7월,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상정
- (쟁점사항) 게시판 본인확인제 대상의 시행령 위임,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, 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주요 쟁점
- (향후대책) 국회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안(37건)을 중심으로 여·야간 이견이 없는 사항부터 개정하는 방안 등 대안을 모색

V. 2010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평가

□ '10년 업무보고 개요

- 지난 2년간 성찰과 국민이 원하는 방송통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「**방송통신 2010 어젠다**」 및 **핵심과제**를 선정·추진

< 방송통신 2010 어젠다 및 핵심과제 >

어젠다	방송통신·미디어산업 육성	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	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
핵심 과제	·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· 방송광고시장 경쟁 도입 · 디지털전환 본격 시작 ·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 선도 · 녹색융합서비스 확산	· 10배 빠른 네트워크 · 무선인터넷 붐 조성 ·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	· G20 성공적 지원 · 방송통신 해외진출 확대 · 방송통신 품격 제고

□ 추진실적 평가

- **종편·보도채널 선정**으로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였고, 1초 과금 도입, 발신번호표시 무료화,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시행으로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'**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서비스 강화**'를 위한 역할을 수행
- 다만, 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, 신규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,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화, 저질·막말방송 예방, 사이버 병폐해소 등에는 다소 미흡

구분	방송통신·미디어 산업육성	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	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
잘한 점	○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(종편·보도채널) ○ 3개 지역 시범종료 등 디지털전환 촉진 ○ 세계최초의 지상파 3D 실험방송 실시	○ 광대역통합망 구축 완료 및 Giga인터넷망 시범 서비스 도입 ○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 ('10년말 기준 700만대)	○ G20 정상회의 시 첨단 서비스 체험기회 제공 ○ '14년 ICT 전권회의 유치 (세계ICT 정책수립 주도) ○ 중남미 등에 방송통신 수출 전략품목 진출 촉진
미흡 한점	○ 방송통신 광고시장 육성 미흡(민영 미디어렐 미도입)	○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연	○ 저질·막말방송 예방 미흡

□ 주요과제 추진실적

2010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	추진 실적
1. 방송통신·미디어산업 육성	
1-1. 방송·통신 서비스 본격 경쟁 ○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○ 서비스 경쟁 강화 ○ 공정경쟁 환경 조성	○ 종편·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계획 마련(12월) ○ MVNO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(3월) ○ 방송사업 허가 심사기준·절차 확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(3월) ○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('10년 4,500억원 절감 예상) ○ 방송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(3월)
1-2. 방송·인터넷 광고 및 콘텐츠 시장 육성 ○ 방송광고시장 경쟁도입 및 확대 ○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○ 방송통신콘텐츠 시장 육성	○ 가상·간접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(1월) 및 가이드라인 마련(6월) ○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(9월) ○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공정위 합의(7월) 및 방송법 개정안 마련(10월) ○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지원 대상자 선정(4월, 109편 186억원) ○ 방송콘텐츠 투자조합(결성금액 100억원) 조합규약 확정 및 결성총회 개최(11월)
1-3. 디지털전환으로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○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○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	○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의결(4월) ○ 전국 1,500개소 DTV 수신환경조사 및 결과분석 완료(12월) ○ 시범사업지역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완료(울진 9월, 강진 10월, 단양 11월) ○ 디지털전환추진단 구성(3월),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(9월) 및 고시제정(12월) ○ 아날로그 전송망의 디지털전환 추진(~12월)

1-4.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선도 ○ 차세대 방송(3DTV) ○ 차세대 이동통신(4G)	○ 세계 최초 고화질 3DTV 실험방송 실시(10월) ○ G20 정상회의 주행사장에 3DTV 방송관 운영(11월) ○ 5대 광역시 및 주요 고속도로 WiBro 확대 개통(10월) ○ 4G 국제표준화회의(ITU-R WP5D) 참가(2월, 6월, 10월) ○ 2.1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및 주파수 할당 통지(5월)
1-5. 새로운 녹색융합서비스 활성화 ○ 방송통신 녹색 융합서비스 추진	○ 서울시내 144개 CCTV 영상정보 등 IPTV 교통정보 서비스 개시(3월) ○ 교육, 산림 등 7개 분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과제 공모(5월) 및 추진
2. 미래 네트워크 선도	
2-1. '12년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○ 기가인터넷 구축 추진 ○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○ 사물지능통신 확산 환경 조성	○ 1,000여 시범가구 Giga 시범서비스 제공(9월) ○ G20 행사기간 Giga 인터넷서비스 시연(11월) ○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(6월) 및 구축사업 계약 추진(6~10월) ○ '10년 사물지능통신 사업협약 체결(1월) 및 선도시범사업 완료(11월)
2-2. 무선인터넷으로 제2의 인터넷붐 조성 ○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(스마트폰 보급 확대) ○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 ○ 클라우드서비스 도입 지원 ○ 미래인터넷의 선도적 비전 제시	○ 이통3사 전체 휴대폰 출시 97종 중 38종 스마트폰 출시(11월, 39.2%) ○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「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」 발표(3월) ○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'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' 수립(7월) ○ 클라우드서비스 시험서비스 실시(7~9월) 및 테스트베드 센터 개소(11월) ○ 미래인터넷 민관자문위원회 구성 및 추진전략 수립(5월), 미래인터넷 국제 컨퍼런스 개최(6월)
2-3.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○ DDoS 등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강화	○ 정보보호 전문인력 보강(2월, 35명 KISC) 및 KISC 노후시스템 교체 완료(10월)

○ 신규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○ 이용자 보호 강화	○ DDoS 사이버대피소 구축완료 및 시험운영(6월) ○ 악성코드탐지 점검대상 웹사이트 수 확대(10월, 20만→100만) ○ VoIP 침해사고 대응 안내서 개발(4월) 및 VoIP 침해사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(6월) ○ 정보보호 예보지표 개발(10월) 및 감염 PC 사이버 치료체계 시범구축 완료(12월)
--	--

3.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십 확보

3-1. 방송통신 KOREA 브랜드 강화 ○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○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○ 방송통신 ODA 확대	○ 3DTV 시연 및 유·무선 IPTV 서비스 제공 및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 개최(11월) ○ ITU 전권회의 유치 및 이사국 6선 성공(10월) ○ 개도국 72개국 450명 초청연수 실시(~12월) ○ 개발도상국에 방송통신분야 자문단 파견(~12월, 6개국 20명)
3-2. 해외로 뻗어가는 방송통신 ○ 방송통신 글로벌 진출 확대 ○ 해외 홍보방송 확대	○ 방송통신 융합 로드쇼(9회) 및 방송콘텐츠 쇼케이스(7회) 개최(~12월) ○ 해외 수신가구 확대 320만(목표355만) 신규 수신가구 달성(11월말 기준, 90%)
3-3. 방송통신 품격 구현 ○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 ○ 미디어다양성 보장 제도화 ○ 공익광고 활용도 제고 ○ 방송품격 제고 ○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○ 불법스팸 대응 강화 ○ 고품격 인터넷문화 교육 확대 및 캠페인 실시	○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인터넷 수능 인프라 확충(5월) ○ 시청점유율 조사·산정 및 사후규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시행(10월) ○ 비상업적공익광고 무료 편성비율 등 공익광고 관련 방송법개정령안 마련(2월) ○ 청소년에게 유익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여가부, 방송3사 등과 업무협약 체결(10월) ○ 청소년 유해영상물 DB 구축 및 P2P 사업자 대상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(5월) ○ 스팸방지를 위해 이통3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서비스 전면 도입(4월) ○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자가진단서비스 제공(11월 기준 7,633명)